

지역사회 비난 커지자...총선 악영향 우려 서둘러 교체

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 왜 바꿨나

오락가락 공천 관리...광주·전남 18곳 중 6곳서 재심 신청 시민단체·지역 유권자 반발...최고위서 자격 박탈 초강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21대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광주지역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광주의 얼굴'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지역 민심을 중앙당이 심사숙고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시작 이전부터 잦은 불타법 의혹을 받았고, 검찰과 선관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광주 광산갑 후보 자격 박탈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경선 불복 논란을 빚으면서 그동안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 기준 없는 재심 결정에 반발 초래=민주당은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이

용빈 예비후보와 이석형 예비후보 2인 경선을 실시했고, 경선 결과 이석형 예비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곧바로 경선과정에 이석형 예비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이용해 지지·선전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불거졌고,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에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을 했고,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재심을 미뤘다. 하지만, 재심위는 선관위가 이석형 예비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이석형 후보의 손을 들어 주며 상대 후보인 이용빈 예비후보의 재심을 기각했다.

광주·전남 18곳의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례는 이 예비후보가 처음이었다. 앞서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는 재심위가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했음에도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결국, 동일 사안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이석형 예비후보에게 자격을 부여

한 데 따른 지역민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지난 16일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가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사무실, 선거캠프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선거 캠프는 광주·전남에서 이 후보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7일 민주당 광산갑 당원들과 민주당 광주시장 오태화 대학생위원회장도 "광주가 부끄럽다,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 유권자가 선관위에 '이 후보 측의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18일 알려지면서 극에 달했고, 결국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 허점 비난도=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공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천장 수여 하루 전날, 그리고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바뀌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재심과 최고위원회의 반복 결정으로 민주당이 줄곧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의 허점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이석형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재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후보로 추천했다.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 가운데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 후보가 처음인데도 중앙당 지도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금품살포 의혹 제기 등 잇단 잡음이 쏟아지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지역민들의 반발만 더욱 키웠다.

또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재심이 신청됐던 지역은 광주 동남갑, 북구를, 광산갑, 광산을,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무려 6곳에 달한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양상 속에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민주당의 대처는 부실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키웠고 오락가락하는 공천 관리로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 불법 조희진 권리당원 명단의 활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광산갑의 경우, 경선 전 한 후보가 불법조희진 1500여명의 권리당원 명단이 문제로 제기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

은채 경선이 진행됐다가 낙선한 예비후보의 항의에 따라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불법조희진 권리당원이 경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선 전에 이들 권리당원의 배제 여부가 결정됐어야 했다.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 관리 탓에 19·20일 예정된 광산을 재경선에서는 전체 광산구 권리당원이 정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 뒤늦은 선거구획정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 편입된 순천해룡면 권리당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잃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경제위기 장기화 가능성...연대·협력으로 극복"

경제 주체들 초청 원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와 관련해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대표, 시민 대표 등 경제 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 원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둔화세를 언급하면서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 그리고 민생이며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분야가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해 총 32조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던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구구절절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5) 트로트

트로트가 대세다. 지난해 진도 출신 송가인을 필두로 미스 트롯이 한 시절을 풍미하더니 최근엔 남성 트롯이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다.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들마다 어쩌면 그리 인물 좋고 노래들도 구성지게 잘하는지. 부르는 노래마다 담긴 사연도 애절해 대중들의 감성을 적신다. 우리 시대에 트로트 노래 가사에 자신의 사연을 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애창곡도 트로트였다. "물어 물어 찾아왔

어/그 님이 계시는 곳...저 탈 보고 물어 본다/님 계시는 곳을/올며부터 찾아봐도/그 님은 간 곳이 없네..." 막걸리 한 잔 지나하게 걸치시고 귀가하시는 날이면 나훈아의 '님 그리워' 노래가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왔다. '고상하고 싶었던' 사춘기 시절엔 통속적인 노래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인사도 없이 이불을 둘러싸고 잠든 척 했던 기억이 아스라하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트로트 가사야말로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구구절절 담겨있음을 알 것 같다.

강철수작가(1951-2014)의 '도시 풍경'(1998년 작)은 최근 트로트 열풍 여세를 타던 기타연주에 맞춰 흐느껴 울며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여인의 모습이 어떤지 사연 많은 가수의 모습인 것 같아 오래도록 응시하게 된다. 작가가 늦깎이로 조선타미대를 나온 후 파리로 그림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만난 유럽의 어느 도시 풍경일 지도 모르겠다. 도시



강철수 작 '도시 풍경'

의 한 모퉁이에서 춤과 노래에 빠져있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잠시 일상을 멈춘 채 낭만에 젖어들게 된다.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송정역 광장 등 거리 곳곳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버스킹도 이제 소중한 일상, 어느덧 그리운 우리의 도시 풍경이 된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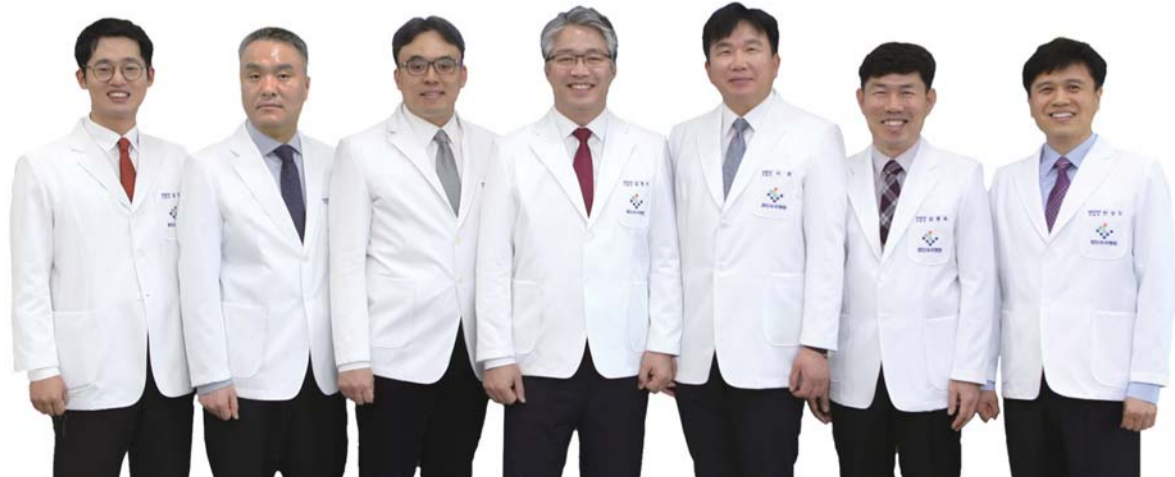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